

지역 국회의원 인기 상임위 농림·외통·국토위

광주일보 15명 조사... 후반기 '농림위' 4명 최다 지원 문화전당·지자체 행정 다룰 교문위·행안위 1지망 全無

여야 원내지도부가 20대 국회 후반기 위원 구성 협상에 착수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와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등이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일보가 28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를 조사한 결과, 15명이 응답한 가운데 이중 가장 많은 4명이 1지망으로 농림위를 희망했다. 이어 3명의 국회의원이 외통위와 국토위를 각각 1지망으로 선택했다.

또 각 2명의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1지망으로 희망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위원회(기재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도 1명의 의원이 1지망으로 각각 선택했다.

하지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정무위원회·국방위원회·환

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단 한 명의 의원도 1지망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특히 환노위의 경우 15명의 의원 모두 1,2,3지망 상임위로 선택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농림위는 황주홍·이개호·정인화·서삼석 등 전남지역 의원이 1지망으로 희망했다. 특히 정인화 의원은 1,2,3지망 모두 농림위를 선택, 20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반드시 농림위에서 활동하고 싶은 의지를 보였다.

이어 외통위의 경우 천정배·박주선·이정현 등 중진 의원들이 최우선적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했다. 또 국토위는 운영일·최경환 의원과 국회 부의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주승용 의원이 만약의 경우를 상정해 1순위로 선택했다.

송갑석·이용주 의원이 1지망으로 산자위를 택했으며 박지원 의원은 "아무도 지망하지 않는다"며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법사위에서 활동하기를 원했다. 전반기 행안위 활동을 했던 권은희 의원도 법사위를

■ 광주·전남의원 희망 상임위

이름	1순위	2순위	3순위
김경진	과방	국방	산자
김동철	기재	국토	산자
권은희	법사	교문	산자
박주선	외통	교문	행안
박지원	법사		
서삼석	농림	행안	국토
송갑석	산자	국토	교문
운영일	국토	농림	
이개호	농림	국토	산자
이용주	산자	정부	법사
이정현	외통	국방	기재
정인화	농림	농림	농림
주승용	국토	외통	
천정배	외통	산자	교문
최경환	국토	복지	
황주홍	농림	산자	교문

희망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지내고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은 기재위를 1지망으로 선택했다. 김경진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최우선으로 과방위 활동을 원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등 핵심 현안을 다룰 교문위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안위, 지역의 각종 현안이 집중하는 복지위 등을 1지망으로 선택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부분이다.

다만, 박주선 의원이 2지망으로, 천정배·황주홍·송갑석 의원이 각각 3지망으로 교문위를 선택해 각 당에서 상임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문위 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또 6·13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서삼석 의원이 2지망으로, 박주선 의원이 3지망으로 행안위를 선택,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평화당 원내 관계자는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상황과 당내 위치에 따라 희망 상임위를 선택했으나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몇몇 상임위에만 몰려 있으면 다양한 지역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이 다르더라도 전체 균형을 맞춰 상임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원 구성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원내대표 신분으로서 선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손금주 의원은 두 번의 연락에도 불구, 응답하지 않았다.

한국당 "내주까지 비대위원장 후보 압축"

자유한국당이 다음 주 주말까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을 압축할 계획이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28일 회의를 하고 "다음 주 주말까지 5~6배수로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정하기로 했다"고 준비위원장 김성원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의원총회가 있고, 초·재선 의원 모임이 있으니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주면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내부인사·외부인사할 것 없이 백지상태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구성 준비위는 비대위가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예인선의 역할을 한다"며 "예인선은 직접 항해를 하지 않는다. 비대위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상수 준비위원장은 준비위 회의에서 "내주 중 대상 인물이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위원장 대상으로 누구를 만나고, 누가 위원장을 한다고 하고, 누구는 사양했다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 거의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위가 무엇을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고 천천히 준비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평화당 지도부 교황 선출방식으로 뽑자"

장병완 등 당내 일부 건의... 정동영·조배숙 "반대"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정당대회 대신 교황 선출 방식으로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평화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장병완 원내대표와 황주홍 정책위의장 등은 당의 사상상 정당대회를 치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황 선출방식으로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평화당은 전국 253곳의 국회의원 지역구 가운데 99곳에만 지역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이다. 이마저도 호남을 제외한 상당수의 지역위원회가 당헌·당규로 규정된 당원 200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정당대회 이전에 사고 지구당 지경 및 지역위원장 재선임 등이 필요, 연기에 불가할 수 있다.

여기에 전체 당원의 90% 이상이 호남에 몰려있어 전국대의원대회로 부르기

에 민망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장병완 원내대표 등은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 고문단 등이 한자리에 모여 당권주자들의 비전을 듣고 교황선출로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전대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당내 결집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상당수의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도 지방선거 참패 이후, 이전 투구식 당권 경쟁보다는 진지한 토론을 통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긍정적인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력 당권주자인 정동영 의원과 조배숙 대표는 원칙대로 정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내 합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드루킹 구치소·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 특검 첫 강제수사

메모·하드디스크 등 압수 드루킹, 피의자로 소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공식 수사 이틀째인 28일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드루킹' 김동원(49)과 공범 '서유기' 박모씨, '둘리' 우모씨, '술본아라타' 양모씨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서신과 메모 등을 확보했다. 또 대형 법무법인 출신 도모(61) 변호사 등 댓글조작 행위에 연루된 변호사 2명의 자택과 사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전날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이 강제수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팀 구성이 늦어져 초반 진행이 더딜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신속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압수수색 대상은 모두 6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변호사 2명은 검·경 수사기록을 분석한 특검이 드루킹의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새롭게 입건한



댓글조작 의혹 관련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물이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중심으로 한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에 이틀 역시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두 변호사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어떤 경위로 댓글조작에 가담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

다. 특히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고,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면담까지 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한 의혹 역시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드루킹은 김 당선인이 도 변호사의 묘으로 오사카 총영사 대신 샌디아 총영사를 역제안했

으나 거절했다고 '육중 편지'에서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오후 2시 드루킹을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이 역시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공개 소환조사다.

/연합뉴스

정의당 지지율 10% '역대 최고'

리얼미터... 민주 47.8%·한국당 18.3%·평화당 2.3%

정의당이 정당지지율 10% 선을 돌파하며 2012년 10월 창당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5~27일 전국 성인 남녀 1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 표본오차), 정의당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한 10.1%로 집계됐고 28일 밝혔다.

리얼미터는 정의당의 상승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일부가(정의당 쪽으로) 결집하며, 수도권과 부산·경남·울산, 20대, 진보층과 중도층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지지율) 상승했다"

고 분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보다 6.3%포인트 내린 47.8%, 자유한국당은 1.6%포인트 상승한 18.3%의 정당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5.3%로 회복했고, 민주평화당은 2.3%로 지난 달 마지막 주의 최저치를 다시 찍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상가 원룸 매매 [신축 전문]

■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10개) (투룸 2개)
4층 (주택) ★공원앞 전망최고★

보 9천 월 600만 (용3억)
▶매가 9억4천만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8천
② 월곡동 (1층.상가1칸) 2층~4층(원룸12개) (투룸3개) (합16개) 월세 590만 ▶ 매가 8억 7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3천만
④ 전대정문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용 3억5천만 가능)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시세 1억3천
매가 6천300만

① 상무지구 중심구역 상가 (12층중 6층) 23평 (보5백 월33만) ▶ 매가 7천5백만
② 북구 용봉동(상가빌딩) 상대분 (코너) 토 65평 건 164평 (4층 안집있음) 보 1억6천 월 430만 ▶ 매가 11억2천만
③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초역세권 토지) 송탄역 1분(코너) (건축허가완료) 개활시 순수익 10억 ▶ 매가가 9억
④ 평택 독곡동 전원주택 분양(투자적합) 송탄역, 진위역 5분 (교육신도시 7분!!) 1필지 약 200평 ▶ 매가 2억4천만(용1억2천)
⑤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신정동) 코너 총 16개 (상가개) ▶ 매가가 3억5천만

010-7384-7800

법률 경매

● 경매교육 ● (기초부터 ~ 실전 전문) ★6월 개강 선착순 모집★

(주)대신경매

상가빌딩(추천)

1) 서구 쌍촌동 (3층 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2천
2) 광산구 소촌동 (원룸빌딩) 토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 → 최저가 2억4천8백
3) 남구 백운동 (3층 빌라) 토 65평 건 145평 (코너 위치) ▶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2억2천
4) 북구 문흥동 (빌라) 토 57평 건 101평 ▶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2억

토지 기타 추천

1) 서구 매월동 348평 유동단지 인구 고지료 코너 6차로대로 접 ▶ 시세 18억 → 최저가 6억6천
2) 동구 지산동 (토지) 176평 ▶ 감평가 1억7백 → 최저가 1억7백
3) 남구 월산동 (100평) ▶ 감평가 1억 2천 → 최저가 7천9백
4)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137평) ▶ 감평가 13억→최저가 9억천
5) 수원지구 (1층상가) 50평 ▶ 감평가 9억3천→ 최저가 5억2천
6)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100평 ▶ 감평가 6억7천→ 최저가2억4천

★ 일반 부동산토지매매 ★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 신정동) 코너 총 16개(상가 1개) ▶ 매가가 3억5천만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주택 공장/기타

① 수원지구 (5층중 2층상가) 감평가 3억천 → 최저가 3억천
② 북구 용봉동 (2층 중 7층 상가) 감평가 8억7천 → 최저가 2억9천5백
③ 동구 남동 (상가주택) 감평가 1억천 → 최저가 1억7천
④ 남구 문흥동 (4층 중 1층 상가) 감평가 1억천 → 최저가 1억2천
⑤ 남구 주월동(미트) 토 108평 건 88평 감평가 14억6천 → 최저가 10억

① 서구 비둘기마을중 아파트 (2층) 감평가 2억천 → 최저가 1억4천
② 서구 용봉동 중흥아파트(2층) 시세 1억9천 → 최저가 1억4천
③ 남구 지동동 현대아파트 (40평) 감평가 2억2천 → 최저가 1억4천
④ 북구 신원동 원양수자인 (2층) 감평가 2억2천 → 최저가 1억4천
⑤ 서구 차림동 마자미트 (2층) 시세 1억 1천 → 감평가 1억

① 북구 일곡동 청솔아파트 (9평) 시세 1억 → 최저가 7천원
② 광산구 신정동 공영토 500평 건 500평 감평가 1억 → 최저가 7천 원
③ 광산구 월산동 공영토 200평 건 200평 감평가 80억 → 최저가 4억
⑤ 서구 양동 (숙박시설) 68평 건 47평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9천

010-7384-7800 010-6670-9800